

## 2019년 8월 시청자위원회

참석 : 양흥모 위원 / 양선희 위원/ 이규홍 위원 / 권부남 부위원장 / 서한나  
위원 / 김병구 위원 / 대전MBC 대표이사 / 경영국장 / 편성국장 / 보도국장  
/ 기술센터장 / 경영심의부장

간만에 뵙습니다. 지난 7월은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했습니다. 지금부터 8월 시  
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신원식 :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동안 일년 동안 고생했던 프로그램들  
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독전>은 이달의 피디상을 수상했고, 9월에는 프로  
그램 개편을 앞두고 지역 MBC가 공동제작하는 <농업이 미래다> 라는 프로  
그램과 철도를 주제로 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도 한창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개편과  
함께 새롭게 단장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부남 :

여름이 지나가니 하반기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새로  
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시도에 기대가 많습니다. 김선재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양흥모 위원 :

폭염관련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온도나 물가 상승, 가축 폐사, 온열환자, 착한  
에어컨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 폭염의 원인이 되는 기후 위기 - 요즘은 기후 위기, 기후 파괴라는 용어를  
쓰는데, 세계적인 폭염과 관련된 동향을 곁들였으면 싶습니다. 제작 프로그램  
에서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보도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다루었으면 싶  
습니다.

독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의 집중보도 등으로 좋은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  
전체적인 국민들의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대의 비  
리나 이후의 결과까지 보도하여 시청자위원으로서 반갑게 시청했습니다. 제작  
부문의 아침이 좋다의 경우 자주 보고 있는데, 시청자의 호응도 높고, 제작에  
서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 만족스런 방송으로 느껴집니다.

권부남 : <독전>이 좋은 상을 받아, 다들 분위기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선희 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양선희 위원 :

<독전>을 계기로 대전MBC의 유튜브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전MBC가 영상수는 적었지만, 구독자수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청자의 유입은 쉽지않은 상황이라면, 유튜브의 구독자수는 방송사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방송사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일본의 경제제재 관련 보도가 많았는데, 산업적 발전에 초점이 있었다가, 정치경제 사회문화 쪽으로 관점이 이동해서 합리적 보도라는 생각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 인터뷰에서는 핵심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간결하고 명확한 보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경문제 관련 뉴스중 폭염을 다룬 뉴스는 환경부 폭염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는데, 온실가스를 저감하지 못하면 맞을 수 있는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를 보도하여 긍정적인 보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 방법 제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관련 뉴스도 2004년의 경축식 자료와 함께 보도해 색다른 느낌이 좋았는데, 이와 관련해, 31운동 100주년 기획보도 자료나 영상자료는 유튜브에 올려 시청자와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아산지역 학생들과 기자가 동행취재 했던 상해 임시정부 관련 뉴스는 현장감도 있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시청자를 위한 뉴스라는 생각입니다. 천안시와 축협이 계약에서 대한 뉴스에서 상대적 약자인 지자체가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 아닌가하는 비판 기사는 시의적절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부분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충남대 등 4개 대학생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정통 미디어에서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과 형식의 편차가 굉장히 크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모호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홈페이지 상에 제시

된 주제와 과연 부합하는가 ? 를 함께 고민하고 제작방향에 대한 공유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이 보인다는 지역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오프닝과 클로징이 에피소드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세심한 제작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권부남 : 대전 충남 지역에서 대전mbc 유튜브의 구독자수가 제일 많다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규홍 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규홍 위원 :

저는 과학이나 의학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인 건강플러스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전문가의 자세한 견해를 보여주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코너이후 의사가 치료와 예후까지 알려주어, 굉장히 학구적인 느낌이며, 길지 않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알려주어 좋았지만, 일반 시청자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고민을 공유합니다. 출연 의사의 경력이나 나이에 따라, 일반인에게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다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건강에 대한 코너에서 한의사가 도라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기침, 가래에 좋다>라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미세먼지에 좋다>라는 언급은 보다 학구적인 탐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다 세심한 제작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와 도라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방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서한나 위원 :

저는 다큐에세이 그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에 방송된 <영원한 실버짜깁>은 영화 같은 인트로, 편집의 유연한 연결되는 수작이라는 느낌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있게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과 마지막 자막에서 도움주신 분들이라는 자막이 보다 모던했으면 하는 바

램입니다.

8월 7일, 수향 김문숙에 대한 방송은 노년기의 인물을 다루는 점에서 아직은 젊은 제가 보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사프로그램 시시각각에서 일본과 관련한 충청권의 타격 등의 주제에서 토론자 전원이 남성인 성비는 조금 불편했다.

8월 25일 방송도 마찬가지로, 토론자 선정시 보다 다양한 성비를 갖추었으면 싶습니다.

김병구 위원 :

여행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테마기행을 많이 시청합니다. 좋았던 점은 의식적으로 공부하거나, 안내판을 읽지 않으면 알지 못 할 내용을 해설과 함께 알려 주어 무척 유익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거나, 해설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은 보다 세심하게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시각각과 같은 시사 토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패널 섭외부터가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출연자가 식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가뉴스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출연하는데, 중복출연하는 정치인들의 자기홍보의 장치럼 느껴지기도 하여, 조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방송에서는 지역의 아젠다를 광범위하게 다루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타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보다 깊이 있는 주제를 서소재로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권부남 :

8월 26일 아침이 좋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선선해진 날씨, 책에 대한 내용이 어울리는 날씨여서 책에 대한 사진과 시청자의 의견을 받는 시청자의견코너는 시의적절했습니다. 다만, 여자 진행자의 경우 큐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바라보고, 멘트를 던지는 모습은 조금 불편해보여,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8월 13일 뉴스데스크 독립기념관 15년만의 기념식의 2004년 영상 부분은 <오늘 광복절...> 이라는 멘트가 좀 거슬렸습니다. 자료영산이기는 하지만, 8월 13일에 <오늘 광복절...>등은 사전에 조금 더 주의 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규홍 위원 :

유튜브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안에는 클립별로 간단한 소개 코너가 있는데, 건강 프로그램의 경우, 유튜브 링크시 상세한 설명이 있으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박선자 편성국장 :

대전문화방송에서는 별도의 유튜브팀을 운영하며,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은 지역의 대학들과 협업하고 있는데, 대학별 편차에 대해서는 제작팀도 고민입니다. 소재와 주제에 대한 간섭은 없으며, 심의에 저촉되는 부분만 챙기고 있습니다.

다큐에세이 그 사람의 영원한 실버짜꿈의 경우 젊은 시청자위원의입장에서 보기 좋았다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예정된 개편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독전 이후 <더 콘서트 오롯이 당신>이 방송됩니다. 총 8회 방송으로 소외된 한사람을 위한 콘서트 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자와 뉴스 앵커 교체 예정입니다.

신영환 보도국장 :

긍정적인 뉴스에 대한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자료는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시시각각 패널의 성비 부분과 정가 이슈의 반복 출연에 대한 고민은 제작진 좀 더 판단해볼 여지가 많은 문제입니다.

양흥모 위원 :

최근 국가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후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중인데, 에너지 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치 시대, 지역의 준비 등을 보다 많이 보도 했으면 합니다.

대표이사 신원식 :

지방분권과 지역방송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 지는 이슈입니다. 지역 방송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 되어왔고, 보다 신경써야할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관련해서 부산, 경남 등은 지원 조례들이 만들어졌는데, 9월중에는 대전 충청지역의 지역방송 지원 조례 논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가을과 추석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